

# 취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현황\*

Work-family Balance for Working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Korea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서지원

Dep.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 Song, Hye Rim

Dep.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eo, Jiw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일-가정 균형 정책의<br>필요성          | 참고문헌        |
| III. 학교의 일-가정 균형<br>제도 운영 실태 분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homepages of elementary schools(n=196). The maj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following 4 subjects, parent-teacher association, after-school programs, holidays on every alternate Saturday, arbitrary no school days.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n social investment policies were discussed :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family-friendly culture in workplaces as well as schools should be established that develop childcare system for working parents.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al system and work system will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 송혜림 (hrsong@ulsan.ac.kr)

contribute to parents' rights in Korea.

**Key Words** :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맞벌이 부모(working parents), 자녀 돌봄(child care), 학부모 참여(parent's participation), 부모권(parents' rights)

## I. 서론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자녀돌봄 노동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온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분담하고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주체로서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이나 균형의 어려움이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직장과의 양립을 지지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 일-가정 균형 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균형과 관련하여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차 중장기보육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이러한 자녀돌봄 지원정책은 가장 돌봄 수요가 높은 연령대인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위주로 집중 추진되고 있어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등이 전일제 근로자인 부모의 직장시간을 고려하여 종일제 운영이 확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감안한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06).

지난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시행과 관련된 성과를 보면,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의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왔으나, 이러한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영유아 자녀의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경감 등에 집중되어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의 돌봄 분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혜아동 대상이 매우 낮아 보편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영역에서도 여전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송혜림 외, 2007). 이처럼 영유아 대상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모 모델로 전환하여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학교는 여전히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학교-가정 연계 운영방식을 유지하며 맞벌이 학부모 모델로 전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발달 특성상 돌봄 수요가 여전히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돌봄 제공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의 경우, 학교-가정간의 긴밀한 연계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 부모의 자녀돌봄이나 학교활동 참여를 지지하는 직장의 근로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않는 사회여건 하에서, 학교 역시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 운영, 재량휴업일의 운영 등에서 취업한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이후 학령기 이전 자녀를 둔 형성기 가족에 대한 자녀돌봄 지원이 학령기 이후 단절되는 정책의 한계(송혜림 외, 2007)를 극복하고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절한 자녀돌봄을 지지하는 보육·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이후 자녀의 돌봄을 위한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일-가정 균형을 위한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한 학교의 제도가 일-가정 균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학교현장의 실태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주체라 할 수 있는 학교와 직장의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다.

## II. 일-가정 균형 정책의 필요성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인 여성의 복지를 지지하는 권리는 노동권과 모성권에 근거한 제도에 의해 실현되어 왔다. 노동권은 여성에게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며, 모성권은 여성이 어머니의 자격으로 자녀돌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의 복지시스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 두 권리는 오랫동안 각기 다른 논리에 의해 상반되고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노동권은 양성간의 평등의 개념에, 모성권은 양성간의 차이의 개념에 기반을 둔 대립구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이재인, 2006). 이는 특히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충돌 혹은 갈등을 야기시켜 왔는데, 출산이나 육아 등을 포함한 돌봄노동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직업생활에 대한 요구가 좌절되는 현상 속에서, 여성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요구 그리고 어머니라는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가족적 요구가 상충되기 때문이다(오향미, 2005).

한편, 자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기존의 성별분업을 고착시키는 부정적 효과와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긍정적 효과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김혜경, 2004). 최근 이러한 대립을 넘어서서 돌봄노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남녀가 함께 돌봄제공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권’이 대안적 권리로 강조되고 있다. 즉 남녀모두가 자녀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응하는 권리로 정의되는 ‘부모권’(이재인, 2006)에 기반을 둔 자녀 돌봄 정책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시장노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제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며, 돌봄노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이나 조세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가정 균형<sup>1)</sup>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이 제

1)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관련 용어들, 예컨대 일-가족 균형, 일-가족 양립, 일-가족 조화, 직장-가정 양립, 일-가족문제 등이 일-가정 균형과 유사

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요인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노동(임금노동)과 가족노동(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일-가족 딜레마 혹은 일-가족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신경아, 2007). 이를 위하여 근무형태의 유연한 운영, 탄력적 휴가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간호 휴가제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왔다(최성일·유계숙,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기업은 일-가정 균형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가족친화정책의 수준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근로자가 속한 가정 전체의 복지가 결정된다. 또한 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일-가정 균형은 중요한 제도가 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족친화적 제도나 ‘일-생활 균형(WLB, Work and Life Balance)’ 이념은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비용보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는 기업의 이익이 높다는 실질적인 이윤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Dalton & Mesch, 1990; Dex & Smith, 2002; Heiland & Macpherson,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Wise & Bond, 2003).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즉 인적 자원의 증진과 활용, 경력 개발 등이 중요하다는 패러다임에 기초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일-여가 균형, 가족생활 시간 확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기업이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사회투자전략으로서 부모권의 실현은 저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아동과 여성 모두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며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가정관리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취업에 따른 역할갈등, 시간관리 전략, 가사노동 분담 등 미시적 차원의 주제에서 나아가, 최근 여러 연구(김선미, 2005; 변미희·강기정·정희정, 2007; 이영미, 2005; 정영금, 2007; 최성일·유계숙, 2006)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가족의 정책요구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III. 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운영 실태 분석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균형 정책을 논의하고자 초등학교 저학년생 부모를 위한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상술한 바, 지금까지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은 영유아를 둔 가정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일·가정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현장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가정 균형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초등학교는 서울과 영남지역 소재 대도시 및 중소도시 9개 지역 초등학교 1,429개교(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2007)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196개교가 층화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권역 교육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남, 동작, 성동, 성북

한 의미를 지니므로 원래 용어대로 인용하였다.

등 11개소) 별로 각각 5-6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영남지역의 경우, 광역시인 대구, 울산, 부산과 경남지역의 창원, 마산, 통영과 경북지역의 포항, 구미, 안동 등의 도시를 선정한 후, 광역시의 경우에는 교육청 별로 4개교 내외의 초등학교를, 이 외의 다른 도시는 각각 5-10개교 내외의 초등학교를 할당하였다. 이러한 표집의 결과, 서울 소재 90개 초등학교와 영남지역 소재 106개 초등학교의 홈페이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콘텐츠 분석은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2007년도 1월부터 축적된 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들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모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재량 휴업일 등 4가지 학교제도 영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 2. 일가정 균형을 위한 학교제도 영역별 운영 실태

### 1) 학부모 모임 운영

학부모 모임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부모교육, 체육대회나 발표·전시 등 학교행사, 학부모 총회, 명예교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입학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하게 포함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학부모 모임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가정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학부모 모임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학습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다른 학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녹색어머니회, 독서도우미 모집 등 다른 학교의 학부모 조직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 직장인의 보편적 근로시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어, 취업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 A초등학교의 경우, 부모교육이 9시 30분-11시 30분, 학부모 단체간 체육대회가 2-5시, 학부모총회가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울 B초등학교 역시 학교운영위원회가 3시 30분, 수업공개 및 학부모 총회가 1시 30분-3시, 학부모회 임원 강좌가 10시, 방과후학교 공개수업도 일과 중에 개최하였다. 서울 C초등학교(사립)의 경우에도 입학 설명회를 10시 30분-11시 30분에 개최하고 있었으며, 서울 D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로봇교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 20시간을 모두 오전 중에 운영하였고, 가족발명 창작교실 프로그램 역시 금요일 10시-12시 30분에 운영하였다. 창원 A초등학교의 경우 수업공개 날 행사를 오전 10시-11시 30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오후 2시 30분-4시에 진행하였다. 창원 B초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장 면담을 오전 10시에 진행하였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해 ‘학부모 저녁모임’의 확산을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여건 조성 및 아버지인 남성의 자녀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과시간 이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계부처합동, 2006),<sup>2)</sup> 학교 홈페이지 내용

2) 미국의 학부모 저녁모임의 사례(볼티모어 초등학교, 플로리다주 comstock 초등학교)를 보면, 가족여흥과 배움의 밤, 또는 자녀교육 워크샵 등에 대한 학부모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저녁시간에 모임을 개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06).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저녁모임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모임을 저녁에 개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6개 초등학교 중 4-5개소에 불과하였다.

예컨대 <표 1>과 <표 2>의 서울 E초등학교와 G초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된 학부모 총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행사시간이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간에 개최되는 학부모 총회 사례 1

14:00-14:10	학부모 소개 방송
14:10-14:40	금학년도 학교운영 주요사항 안내 학교운영 위원 보궐선거 결과 발표
14:40-15:30	담임교사 인사 및 학급 경영 안내 학부모단체 조직 구성
15:30-16:30	담임교사와의 면담

<표 2> 주간에 개최되는 학부모 총회 사례 2

일 시 : 2007. 3. 21(수) 14:00-16:00	
장 소 : 자녀 교실	
주요 내용	
* 2007학년도 학교 교육 - 교장 선생님	
* 어린이 교육 협의 - 담임선생님	
* 2007학년도 학부모 단체 조직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교통대, 선도위원회, 깔끔이 봉사단)	
당일 학부모 총회 순서	
14:00-14:20	총회시작(학교장 인사, 학교 교육 등) : 방송실
14:20-15:10	담임과의 시간(각 교실)
15:20-16:00	학부모 단체별 회의(담당자 교실)
16:00-15:30	각 단체 임원 상견례(교장실)

또한 많은 초등학교에서 가족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운동회, 가족체육대회, 가족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

영시간대에 있어서 취업 학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의 제도 운영이 전업주부 가정 혹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융통성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이루어져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소수 학교에서는 학부모 모임 중 교육계획 설명회를 저녁 6시 30분에 개최하는 사례가 있었고(창원 A초등학교), 저녁 8시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가족영화 축제,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작품전시회(창원 B초등학교), 저녁 7시 30분에 실시하는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음악회(안동 A초등학교) 등은 취업 부모의 참여를 배려한 좋은 사례라 하겠다. 학부모가 아예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창원 C초등학교).

이처럼 취업 부모의 학교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의 문제와 함께, 저학년 배식 도우미, 환경미화 도우미, 청소도우미, 독서도우미, 사서도우미 등 학부모가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취업한 어머니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자녀교실 청소를 사양하는 사례가 있었고(창원 D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배식도우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즉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유급 배식도우미를 모집하여 학부모 동원이 갖는 사회적 폐단, 전업-취업주부 간 갈등,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3)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학부모 동원에 대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학교 측에 학부모 강제동원을 자제하라는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식품

3) 서울 I, J초등학교의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모집을 위한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학교 급식 실시에 있어 배식도우미를 운영하여

검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학부모를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일보, 2008. 4. 5).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학부모 모임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그 운영시간대의 편중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하겠다. 즉 전업주부를 전제로 운영되는 학부모 모임 및 행사가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를 소외시킬 소지가 크다는 사실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학부모 모임 운영에서 양성평등 의식과 부모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모임은 일과 중에 개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4) 이처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취업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은 취업한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여 부모권을 보장하는 긍정적 운영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모임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고려하면서도 일하는 어머니의 참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보수적인 부모의 성역할분리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교의 이중적인 제도운영 실태를 반영한다 하겠다. 부모가 모두 취업한 가정이 늘어나고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돌봄의 의무와 권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남성보다는 어머니인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제도 운영 관행으로 인해 임신·출산 및 초기양육의 책임을 주로 수행해 온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자녀가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는 각급 학교 및 지역사회시설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인 특·적성교육, 방과후보육(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을 통칭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표준화된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 및 빈곤층에서 방치되는 학생을 보호하고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방과후학교는 크게 초등보육 프로그램, 특·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째,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 수업 이후 방치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일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둘째, 특·적성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습이 충족되기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의 특·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 봉사하게 될 배식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2명
  2. 모집기간 : 2007. 3. 15(목)~3. 16(금) 09:30~15:00까지
  3. 자격 : 신체 건강한 학부모 (지난 도우미 제외)
  4. 근무시간 : 월~금(급식일) 11:00~13:00
  5. 채용기간 : 2007. 4. 1.~2007. 9. 30
  6. 급여 : 1일 12,000원(매월 말일 지급)
  7.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 (본인 접수, 추후 결과 통보)
- 4) <아빠와 함께 하는 전시체험>일시 : 매주 화요일 19:00~21:00 (서울 G 초등학교)  
4학년 부자캠프 - '아빠와 함께 해요' : 2007.6.2(토) 14:00 ~ 3일(토) 07:30 1박 2일 (서울 H초등학교)

위하여 학습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교과 프로그램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의 보충 및 심화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과 자주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등생에게 해당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등보육 프로그램과 특·적성 프로그램이며, 특히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 고학년생의 경우 다양한 사교육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으나, 초등 저학년생은 보호, 안전, 영양 및 생활지도 등이 더욱 강조되므로 방과 후 학교공간에서 교사의 책임 있는 지도하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로 특·적성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 보호와 양육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특·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이 수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개별 프로그램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 간에 공백 시간이 발생한다. 특히 저학년생의 경우, 그러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 K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단편적인 특·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매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1-2시간 내에 끝나는 짧은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맞벌이부모의 초등생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육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 사례

프로그램	요일	시간
원어민 영어	화, 목/월, 수	1시간
중국어	화, 목	1시간
독서논술교실	월, 수	1시간
전자, 로봇과학교육	목	2시간
플룻부	화, 목	1시간
바둑부	수, 금	1시간
바이올린부	수, 금/화, 수	1시간
자유미술	화, 목/수, 목	1시간 20분
치료미술, 종이접기	수, 금	1시간
마술부	목	1시간
클레이공예부	수, 목	1시간

일부 학교에서는 자녀돌봄의 부담이 높아지는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역시 특·적성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내용상의 한계를 가진다. 또한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과정에는 휴업일이 많이 있어 취업 부모의 입장에서 대체양육자나 기관 등 다른 돌봄 제공수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한계다. 따라서 현행 방학중 학교프로그램의 운영이 취업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적절한 지원방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표 4>의 서울 L초등학교 겨울방학 중 방과후 활동 시간표를 보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일부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특·적성 교육에 집중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간 연계가 곤란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표 4〉 방학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례

부 서	학 년	학습기간	시 간	수강료 (2개월분)
독서논술	1~2학년	12/26~12/29	10:00~12:00	40,000원
	3~6학년	1/2~1/5	12:00~2:00	
댄스 스포츠	전학년	수	1:00~3:00	40,000원
미술	1학년	12/26~12/29	11:00~1:00	40,000원
	2~6학년	1/2~1/5	12/26~12/29 1/ 2~1/ 5	
바둑	1~2학년	금	9:00~11:00	40,000원
	3~6학년		11:00~1:00	
바이올린	전학년	12/26~12/29 1/22~1/25 1/29~1/31 2/1, 2/6, 2/8, 2/13, 2/15	3:00~4:00	60,000원
어린이 뮤지컬	전학년	화	2:00~4:00	60,000원
주산암산 수학	기초A반 (1~2학년)	12/26~12/29 1/2~1/4, 1/9~1/11	10:00~11:00	60,000원
	기초B반 (3~6학년)	1/16~1/18, 1/23~1/25	11:00~12:00	
축구	1~3학년	12/27, 12/29	1:40~2:50	40,000원
	4~6학년	1/8부터 2/9일까지 매주 월, 수, 금	3:00~4:10	
영재 과학교실	3~6학년	1/22, 1/23	9:00~11:00	60,000원
	1~2학년	1/29~1/31, 2/5~2/7	11:00~1:00	
생명과학 탐구교실	1~2학년	1/22~1/26	9:00~11:00	70,000원
	3~6학년	1/29~1/31	11:00~1:00	
창의력 활동 수학	3학년	화, 목	10:00~11:00	72,500원
	5학년		11:00~12:00	

각급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는 7대 주요정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은 실제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서의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을 보면, 2006년 160학급에서 2007년과 2008년에

는 각각 180학급, 220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현재 전체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 9,955개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7년과 2008년 각각 전체 저학년 학급의 1.8%, 2.2%에만 초등 보육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생을 위한 방과후보육의 경우 향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과후보육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

〈표 5〉 초등보육 프로그램 사례 1

시간	활동영역	월	화	수	목	금
~13:30	생활지도	등원 및 인사. 수업 준비. 자유 활동				
13:30~14:20	숙제 및 학습지도	숙제 지도. 방과 후 학습지				
14:20~15:00	요일별활동	독후활동- 나도 동화작가	*동시- 반달을 타고 *속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문헌정보실 에서 독서하기	종이접기- 개구리	신체 놀이 활동
15:00~16:00	특기교육	레고닥터	간식	영어	수학	미술
16:00~16:30	간식	쿠키	연극	유부초밥	송편	도너츠
16:30~17:30	놀이지도	휴식 및		개별 활동. 보충학습. 독서록 작성		
17:30~18:00	정리정돈 및 귀가지도	정리정돈 및 귀가지도				

이다.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선미, 2005)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특히 초등저학년생을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 지원이 중요하다. 이 때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은 사설학원의 운영내용과 대비하여 질적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양질의 지도를 할 수 있는 방과후 전문교사가 배치되어 교육과 보호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가정과 근접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하고 부모의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 과제 수행, 준비물 마련

등도 교육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마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근로시간 일정을 반영하여 이른 등교시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 간식, 휴식, 놀기, 숙제 봐주기 등의 보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표 6〉 초등보육 프로그램 사례 2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11:30	입실 및 학습지도				
11:30-12:00	실외놀이 (줄넘기, 공놀이, 고무줄놀이 등)				
12:00-13:00	점심 및 양치질				
13:00-14:00	도서관 이용하기				
14:00-15:00	요일별 활동				
	한자	종이접기	독서활동	국악	영어
15:00-16:00	간식 및 일기쓰기				
16:00-17:00	자유선택놀이 및 귀가 지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와 <표 6>에서 서울 M초등학교와 N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보면, 특기적성을 포함하면서도 간식, 생활지도, 숙제지도 등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돌봄이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처럼 양질의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운영시간에 대한 배려 역시 중요한데, 대부분의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이 오후 5~6시에 종료되고 있어 부모의 퇴근 이후 자녀의 학교에 도착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하여 운영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3) 토요일대체 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난 2005년 각급 학교가 월 1회 토요일대체 일을 운영한 이래, 2006년부터는 격주로 ‘토요일대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격주 토요일대체 운영 방식은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 하겠다. 주5일 수업제는 5일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1일은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학습을 심화·보충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며, 근본 취지는 학생들이 주제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가족과의 유대 증진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주 6일에서 주5일로 줄여 가정과 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한편 이와 같은 취지로 시행 중인 토요일대체 일 제도는 부모의 직장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토요일대체에 홀로 방치되는 폐해를 해소하고자 현재 각급 초등학교에서 토요일대체에 가정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업부모의 자녀가 보호자가 없는 가정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가정 균형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대다수 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대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토요일대체 대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여학생의 자발적 흥미를 유발하여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단 이 프로그램은 소수의 학생만 이용하기 때문에 선별과 낙인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참여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행 토요일대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과 질적 측면, 운영시간 등에 있어서

<표 7> 토요일대체 프로그램 사례

1. 독서교실
  - 새로 리모델링 된 책 사랑방에서
  - 선생님과 함께
  - 9시부터 12시까지
  - 재미있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2. 스포츠교실
  - 우리 학교 넓은 운동장에서
  - 친구들과, 스포츠 선생님과 함께
  - 재미있는 운동을
  - 9시부터 12시까지
  - 즐겁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3. 공부방
  - 1층 공부방에서
  - 공부방 친구들과(1-2학년 공부방 학생)
  - 9시부터 12시까지
  - 용기종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표 7>의 서울 O 초등학교의 토요일업일 대체프로그램과 같이 주 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인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기보다 독서, 스포츠, 학과공부 등의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표 8>과 같이 일부 학교는 토요일업일 대체 프로그램을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지역교육청에서 토요일업일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 등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교육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 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 부모의 자녀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화·생태체험과 취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모든 학교에 보편적

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재량휴업일 운영 현황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을 위해 매년 연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 가운데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휴업일을 제정하여 홍보하게 된다.

재량휴업일 제도는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취업 가정의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직장 시간이나 휴가 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학년도부터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 토요일업일을 적절히 활용하여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정도의 학기중 ‘단기방학’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 7. 12). 학생의 단기방학 일정과 취업 부모의 휴가분산제를 연계하기 어려운 취업 부모 가정이나 소외계층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친화적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한겨레, 2008. 4. 1).

본 연구에서도 <표 9>의 서울 P초등학교의 2007년 5월 학사운영 일정을 보면, 어린이날 휴일인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과 마지막 석가탄

<표 8> 방과후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토요일업일 사례

상설 프로그램	독서교실, 컴퓨터교실, 판소리 교실
취미교실	종이접기, 디자인, 음악, 민속놀이, 애니메이션, 동화, 만화, 책 만들기, 영화감상, 포크댄스
교외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공원 체험
현장 체험학습	생태공원 자연탐사
이웃 친구와 함께하는 학교연합 현장학습	기념관 탐방, 공원 생태체험 등
사회과교과 학교연합 현장학습	기념관, 박물관, 사찰 탐사
특기·적성 프로그램	미술, 연극, 축구,
보육교실	학습 및 숙제지도, 풍선아트, 요리실습

신일 휴일인 목요일과 토요일휴업일 사이의 금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다.

〈표 9〉 5월에 집중된 재량휴업일 운영 사례

날 짜	행사 내용	장 소
3일(목)	어린이날 기념 소체육 대회	교내
4일(금)	자율 휴업일	
12일(토)	토요일 휴업일	
25일(금)	자율 휴업일	
26일(토)	토요일 휴업일	

재량휴업일은 가정체험학습일(구미 A초등학교) 혹은 가족사랑체험일(대구 A초등학교), 5월 8일 효 체험의 날(부산 B초등학교) 등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교직원 체육대회를 위해 수업을 단축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포항 F초등학교), 조기 하교한 사례(통영 A초등학교) 등이 있었다.

자녀의 학교와 직장의 일정이 조율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량휴업일의 집중 경향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친화적이어야 할 5월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운영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 맞벌이 가정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교육현장인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제도 운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학부모 모임, 방과 후학교, 토요일휴업일, 재량휴업일 등의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녀돌봄과 학교활동 참여를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며, 취업하지 않고 대기 중인 어머니를 전제로 하는 제도 운영으로 인해 취업 학부모의 일정을 배려하지 않아 오히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학교제도는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교육에 대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과 자녀돌봄의 이중부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정 체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의 요구 및 지원 수준이 과거의 ‘남성-직장’, ‘여성-가정’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노동부담이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학교제도 운영을 통해서는 향후 취업여성의 자녀출산 기피 경향이 지속되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돌봄에 따른 가계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양육역할에 대한 부부의 역할 갈등 등으로 인해 개별 가정의 안정성 또한 저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안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미래세대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모두 부모권과 노동권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제도의 수정·보완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선, 현재의 불균형한 일-가정의 조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학령기 이후 자녀돌봄을 지지·보충·대체할 수 있도록

록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행사 및 모임 참여를 위해 우선 행사 운영시간에 대한 배려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한 부모를 배려하기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야간 학부모 모임 등이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적 배려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볼티모어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사례(관계부처합동, 200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 대해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교에서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학부모 모임,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업 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식배식 및 식재료검수·교실청소·환경미화 등 자원봉사 형태로 학부모를 동원하는 운영행태를 개선하여 전업주부 가정과 취업주부 가정 학부모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이에 파생되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 등 투명한 학부모-교사관계 및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부모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 부재를 해소할 대안으로 일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급 서비스 이용을 제도화하여 최근 복지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적성 프로그램 위주의 단시간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양하고, 특히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 중인 초등 저학년생을 위한 방과후보육 프로그램을 모든 취업 부모가 방과후 자녀돌봄의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실시를 대다수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시설, 인

건비 등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토요일업일 대체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 아직 주5일제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교육소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요일업일 대체 프로그램이 최소한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요일업일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종 재량휴업일의 운영에 있어 취업 부모 가정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재량휴업일을 배려하는 근무여건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무여건이 재량휴업일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힘든 여건의 아동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질 좋은 대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이 없는 전면적인 단기방학 등의 재량휴업일 확대 시행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취업 학부모는 일-가정 균형을 위하여 자녀돌봄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 뿐 아니라 직장으로부터도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일-가정 균형을 위한 학교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학교-가정의 긴밀한 연계를 지원하는 직장내 가족친화 제도의 보편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역시 중요하다. 일-가정의 균형 회복을 위해 '가정'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양육과 학교생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가족친화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특히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참여가 가정생활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적 연구(김영

희, 2001; 김현주·이병훈, 2007; Henderson & Berla, 1994)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원봉사, 학부모 모임 등에 참석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 학교활동에 대한 참여를 원하는 취업 부모의 경우, 자신의 직장에서 탄력근무제, 가족휴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자녀 양육을 위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현재와 같은 학교의 제도 운영 방식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의 방안에 대한 유계숙의 연구(2006)에 의하면, 자녀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캠프, 자녀봉사캠프, 가족영화상영 등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녀양육 및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제도는 자녀출산기 및 양육 초기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 우리 사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등의 경우, 학교 참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 학교측의 배려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에 대한 학교참여 지원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학교현장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공식학부모단체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학교 후원단체의 성격을 지닌 후원회(1945~1953), 사친회(1953~1962), 기성회(1963~1970), 학교육성회(1970~1995)를 거쳐 1996년 이래 학교운영위원회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학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재정적 후원조직으로 머물러 있었으며 일반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박남기·김근영, 2007), 가정과 교육현장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상호신뢰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정진곤, 2004) 일하는 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취업한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학부모 모임의 대안으로 ‘e-Home’ 등 온라인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정착되면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시간적 공간적 이유, 경제적 이유, 거리감 등으로 교육활동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정보 인프라 활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철, 2003).

실제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자녀양육 가정의 욕구 충족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개별 가정을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가정 균형 달성이란 동일한 목표 하에 맞벌이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다양한 일-가정에 대한 가치, 목표, 표준에 따라 각자 다양한 조합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 가정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일-가정 균형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후속연구에서 가정생활 및 학교현장에 대하여 실질적 주체인 자녀양육 가정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지, 직업특성, 소득계층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입장에 따라 그러한 요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재의 교육제도와 학교현장의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가정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가정정책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일-가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일과 가정 중 어디에 전략적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관계부처합동(2006). 함께 가는 가족 2010: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 2)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서비스(2007). www.cesi.kedi.re.kr
- 3)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 4) 교육인적자원부(2007. 7. 12). 보도자료.
- 5)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 6)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7) 김철(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e-Home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7(2), 239-247.
- 8) 김현주, 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9) 김혜경(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 쟁점. 한국여성학 20(2).
- 10) 박남기, 김근영(2007).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급경영. 대구 : 태일사.
- 11) 변미희, 강기정, 정희정(2007). 아이돌보미 시범사업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67-84.
- 12)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초등학교 홈페이지.
- 13) 송혜림, 진미정, 이완정, 박정윤, 서지원(2007).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 2007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위 주최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 14) 신경아(2007).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2), 5-45.
- 15) 오향미(2005).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 '육아와 직업의 조화'에서 '육아의 직업화'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175-199.
- 16) 이영미(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95-104.
- 17)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28(2), 67-88.
- 18) 정영금(2002). 가족-일 통합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143-155.
- 19) 정영금(2007).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37-52.
- 20) 정진곤(2004).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그 의미와 당면과제. 신뢰 :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이온죽 편). 서울 : 집문당.
- 21) 조선일보(2008. 4. 5).
- 22) 최성일, 유계숙(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 23) 한겨레신문(2008. 4. 1).
-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출산 및 양육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방안(총괄보고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5) 한지숙, 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 촉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43-166.
- 26) Dalton, D.R. & Mesch, D.J.(1990). The impact on flexible scheduling on employee attendance and turnov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270-387.
- 27) Dex, S. & Smith, C.(2002). the nature and pattern of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in Britain. Bristol : The Policy Press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 28) Heiland, F. & Macpherson, D.A.(2004). Do family-friendly firms perform better?. The 2004 Annual Meetings of the Southern Economics Association.
- 29) Henderson, A. T. & Berla, N.(1994). A new generation of evidence : the family is critical to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in Education. Washington, D.C.
- 30) Wise, S. & Bond, S.(2003). Work-life policy : Does it do exactly what it says on the tin?. *Women in Management Review* 18(1), 20-31.
- 접수일 : 2008년 4월 14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7일